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	 보다는나온 정부
		배포일시	2019. 2. 18.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정석, 주무관 김영민 • ☎ (044) 201-4253, 4206	
협업 기관	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인프라구축팀	담 당 자	• 팀장 박욱제, 선임연구원 김승한 • ☎ (032) 727-5743	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된다

### 실내시험장 고난이도 시험 제약 → 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기능토록

- 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'드론 안전·활성화 지원센터(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, 이하 센터)'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,
  - \*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·벤처기업(22개사)을 선정하여 기술·금융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중('17.9~)
  -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(원장 김연명)을 통해 성남시,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\*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('19.2.18)했다.
    - \* 그간 경위 : ('18.5월) 신산업규개촉(국조실) 안건 상정 등 공론화→('18.9월) 관계기관 실무협의 착수→('19.2월) 관계기관 협약체결→('19.3월) 협약 실시
-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(제2밸리)에 위치해 전·후방 산업계,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,
  -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\*의 안전·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.
    - \* 서울공항 반경 9.3km 이내(성남시 전체 면적의 82%해당)

-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하였으나, 실내 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·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고,
  -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 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.
-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·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,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.
  - \* (성남시) 기관 간 협조 총괄 등 성남 내 드론비행 총괄 관리, (공군) 훈련비행 일시 사전통보 및 비행승인, (한국국제협력단) 운동장 부지 제공, (항공안전기술원) 감독관 배치 및 안전관리
  - 종전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(3~4일),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,
  -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,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“안전·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” 라면서, “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”라고 밝혔다.
  - 아울러,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하여 각종 기술·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 (☎ 044-201-42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